

# 시와 그림의 만남... 별빛 앙금을 쫓는 해산표류기

### 한승원 소설가-정해영 화가 시화전 '고요, 신화의 속살같은' 24~29일 무등갤러리서...오늘 개막식·출판 기념회도 예정

“정해영 화가의 그림은 굉장히 서정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번 시화전에서는 내 시와 정 화가의 그림을 일반 독자들이나 미술애호가들이 편하게 감상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일테면 시가 그림이고 그림이 시인 셈이죠.”(한승원 소설가)

“한 작가님과 제가 닮았다는 말을 들곤 했어요. 느낌이 비슷해서 시화전을 하면 좋을 것 같으면서요. 그것이 계기가 돼 1년 정도 준비한 끝에 시화전을 열게 되었죠.”(정해영 화가)

한국문학의 거목 한승원 소설가와 한국화의 조용한 혁명가로 불리는 정해영 화가의 시와 그림이 어우러지는 시화전이 열린다. 광주 무등갤러리 24일-29일.

시화전 '고요, 신화의 속살같은'을 앞두고 기자는 두 예술가와 대화를 했다. 한승원, 정해영. 저마다 예술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한 두 작가가 시화전을 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센세이션 한 뉴스다.

특히 시화전은 한 작가의 8번째 시집 '고요, 신화의 속살같은' 출판기념회(24일 오후 5시)도 겸하고 있어 더욱 의미가 깊다. 시화전 주제나 시집 제목이 동일하다는 것은 시와 그림의 조화가 '환상적'임을 전제할 것이다.

당초 이번 전시는 '디자인쇼' 광역속 대표와 정 화가가 지난해 어느 모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점차 구체화됐다. 두 사람 모두 한 작가의 작품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광 대표가 이번 시화전을 '별빛 앙금을 쫓는 해산표류기'라고 명명한 것은 저간의 이유가 있다.

“한승원 선생님의 시 '빈센트 반 고흐에게' 중에 '별빛 앙금'이란 표현이 있어요. 시를 읽으면 가슴에 어떤 뭉클이 맺히는 듯 합니다. 그 때문에 선생님 글을 읽는데, 저희들은 이것을 '해산표류기'라고 하죠. 즉 선생님의 문학에 머물며 즐긴다는 뜻이예요.”



한승원 소설가(왼쪽)와 정해영 화가가 시화전을 앞두고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정해영 화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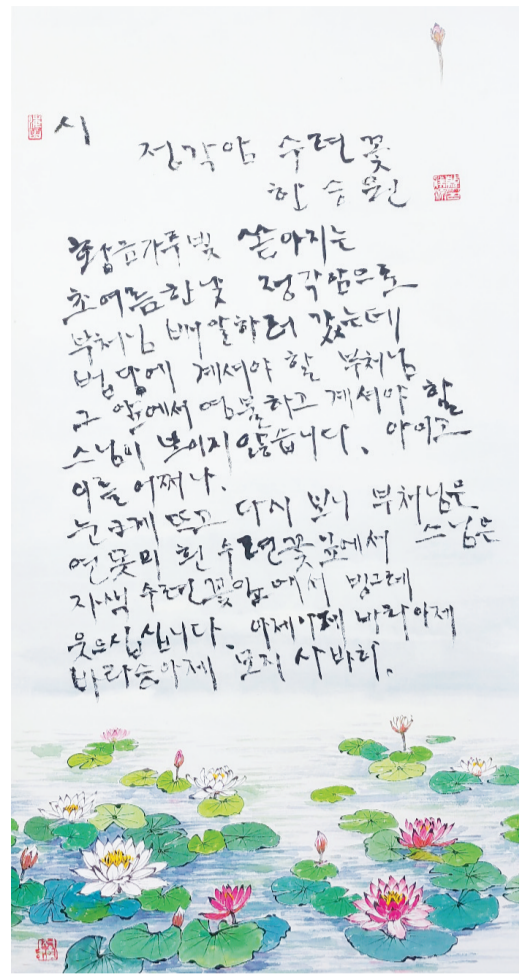
“해산(海山)은 한 작가의 호다. 한 작가가 작업실을 해산토굴이라고 불일 만큼 '해산'이라는 말은 깊은 사유가 투영돼 있다. 일반적으로 해산은 바다에 있는 산을 일컫는다.

한 작가는 “바다 속 깊은 곳에서 1000미터 이상 뻗어나는 산을 해산이라 하는데 해산이 더 크게 자라면 암초가 된다.”며 “독도 같은 주변에는 해산이

많다. 확장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산은 물속의 비가 시적인 산이라는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모두 60점-70점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일부분은 한 작가가 직접 시와 글씨를 썼고, 일부분은 정 화가가 시를 받아서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다.

“저는 해찰(解察)하는 느낌으로 작업했습니다.



'정각암 수련꽃'

해찰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장난치듯 가볍게 그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세하게 알아간다는' 의미의 불교적 용어죠. 저는 후자에 방점을 두고 작업을 진행했구요. 일종의 깨닫는 행위의 연장선이었죠. 무엇보다 선생님 시에는 저마다 그림이 드리워져 있어요. '시중유와 화중유시'(詩中有畫 畫中有詩)라는 말이 있는데, 그와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 선생님 시에 그림을 덧붙인다는 것이 계기는 작잖은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정 화가는 “그림에도 한 선생님은 '모든 것을 화가의 시선대로 그림을 그려달라'고 배려했다”고 전했다. “깊게 읽어 보세요”라는 문자 외에는 시집에 대한 가타부타 말 한마디 없었던 것이다.

한 작가는 이번에 쓴 시들은 “우주를 짝사랑하듯이 썼다”고 언급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일테면 들꽃이나 해, 달 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연서와 같다는 것이다. 시집 뒤쪽에 수록된 글은 일종의 시론으로, 평생 소설을 써온 작가가 생각하는 자신의 시에 대한 철학을 담고 있다.

“이번 시들은 짧지만 촌철살인의 의미를 환기하는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어쩌면 '귀엽고 아프게 찢리는' 시라는 표현이 적절할 듯 합니다. 오늘날 시들이 점차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거의 짧게 시를 썼지요.”

출판기념회를 겸한 시화전 개막식은 문인들도 다수 초청했다. 이들에게 시 낭송을 부탁해 한 편씩을 낭송하게 할 예정이다.

한 작가는 올해 우리나라로 86세인데도 왕성한 글쓰기를 하고 있다. 창작 비결이 무엇일까. 마지막으로 평생 추구해 온 소설의 주제, 그리고 나이들의 의미에 대해 물었다.

“흔히 제 소설에 '한'이 깃들어가 있는데, 생명력이라 할 수 있죠. 아리랑을 부르는 것도 일종의 환율이입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력이 더 가깝지요. 아리랑 고개 너머의 안식과 평화를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죠. 시도, 소설도 모두 안식과 평화를 찾아가는 몸부림입니다... '80이 넘으면 이승과 저승을 함께 산다'는 말이 있어요. 일종의 초월적인 삶이죠. 귀찮은 것은 생각지 않으려 하고, 벗어나려 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요. 그럼에도 저는 살아 있는 한 글을 쓸 것입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정신 토크아본다...유럽 동포들의 '오월민중제'

### '제44차 재유럽오월민중제' 개최 24~26일 독일 베를린 유스호스텔 영화 상영·합창·강연 등 행사 다채

5월 항쟁의 의미 등을 돌아보는 5·18 기념행사가 유럽에서 열린다.

재유럽5·18민중항쟁협의회가 24~26일 서울에 걸쳐 독일 베를린 유스호스텔에서 '제44차 재유럽 오월민중제'를 펼친다. 초청 강연과 공연, 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24일에는 박영이 감독의 '하늘색 십포니' 영화상영이 예정돼 있다. 영화는 일본에서 나고 자란 조선학교 학생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여정을 다룬 형식으로 그려진다. 제8회 DMZ 국제다큐영화제 상영작 및 제15회 달라스 아시아 영화제 다큐멘터리상 수상작이며 영화 상영 이후에는 GV(감독과의 대화) 행사도 마련된다.

전용호 작가의 강연을 들을 수 있는 행사(25일)도 있다. 전 작가는 5·18 당시 투쟁위원회 홍보팀으로 들불야학 학생들과 '투사회보'를 제작·배포하다가 투옥됐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삽입된 노래극 제작에 참여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전두환 쿠데타



광주 푸른솔합창단이 지난 공연에서 합창하는 모습. <광주푸른솔합창단 제공>

군부가 쏘아올린 바벨탑'을 펴냈다.

광주 푸른솔합창단의 민중가요 독창, 중창, 합창 공연도 특별 행사로 예정돼 있다. 이 밖에 가무악 청소년 그룹 '무악'의 전통무용, 놀이패 '두들소리'의 사물놀이도 펼쳐진다. 행사 마지막 날(26일)에는 평화, 민주화 등에 대해 다 함께 성명서를 작성·채택하고 낭독하는 시간도 있다.

재유럽 5·18민중항쟁협의회 관계자는 “연일 전

쟁의 아픈 뉴스가 들려오는 상황 속에서 평화와 민주화를 노래하는 이번 '민중제'가 큰 의미를 지닐 것이다”며 “도요일 강연과 토론은 독일어 통역도 제공하니 독일인 및 한인 2세들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2박 3일 참가비 일만 110유로, 부부 170유로, 학생 및 저소득자 70유로. /최류빈 기자 rubi@

# 클래식, 다 함께 편하게 즐겨요

### 양상블팀 '단미' 정기연주회...25일 금호아트홀

“클래식을 잘 알아야만 감상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라 비전공자도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이번 공연은 수준 있지만 낯설지 않은 곡들로 선곡했죠”

클래식 양상블팀 '단미' 대표 전혜린 씨는 이번 연주회와 팀의 방향성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25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제2회 정기연주회 Danmi'를 앞두고 있다.

팀명 '단미'는 순우리말로 사랑스러운 여인들이라는 의미다. 전 씨는 “네 명의 팀원들이 모두 학교가 아니라 사회에서 만났음에도 마음이 잘 통해 양상블까지 꾸리게 됐다”며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아름다운 표현 '단미'로 팀명을 명명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진행한 창단연주회에서 4명이 하나가 되어 연주하는 포헨츠, 에잇헨츠 무대를 중심으로 관객들을 만난 바 있다. 이번에는 양상블 협연을 비롯해 개개인의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솔로 무대로 공연을 채워 나갈 예정이다.

포헨츠로 자주 연주되는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을 전 출연진이 함께 연주하며 막을 연다. 그리그는 핀란드의 장 시벨리우스, 체코의 스메타나와 같이 노르웨이 민속음악을 활용한 작품들을 많이 남긴 국민악파로 알려졌다. 이어 피아졸라 '리베르 탱고'는 최예지, 박은선이 피아노 듀엣으로 연주한다.



클래식 양상블 '단미'. 왼쪽부터 최예지, 전혜린, 박은선, 최주애. <단미 제공>

전혜린은 쇼팽 '왈츠 2번 A 플랫장조, Op.34 1번'을, 최주애는 리스트의 곡 중에서도 어렵기로 정평이 난 '마제파'로 관객들을 만난다. 이 밖에도 브람스의 '피아노 편곡 버전 샬사', 라흐마니노프 '전주곡 G단조 Op.23 5번' 등이 올려 퍼진다.

단미 박은선 연주자는 “모든 관객들이 공연장을 나서며 입가에 미소를 머금길 바라는 마음이다”며 “긴장도 되고 부담감도 있지만 즐기는 무대를 보여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듣고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석 5000원. /최류빈 기자 rubi@

# 인간과 자연의 조화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 천영록 개인전...6월 2일까지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천영록 작가의 '순환의 리듬'이라는 작품을 보고 있으면 차분해진다. 모서리가 닳아진 네모의 형상들이 화폭을 가득 채웠지만 답답하거나 지루하지 않다. 화폭에 담긴 감성, 정서의 순환이 가벼우면서도 리드미컬하다.

각각의 작은 도형들은 '따로 또 같이' 존재한다. 개별적이면서도 전체의 통합을 해치지 않는 조화는 순환이라는 주제와 정교하게 맞물린다. 특이한 점은 일부 도형들은 고유한 색들을 지니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도드라지지 않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연계돼 있다. 얼핏 신호등 같기도 하고, 얼핏 작은 전구를 배열해 놓은 것 같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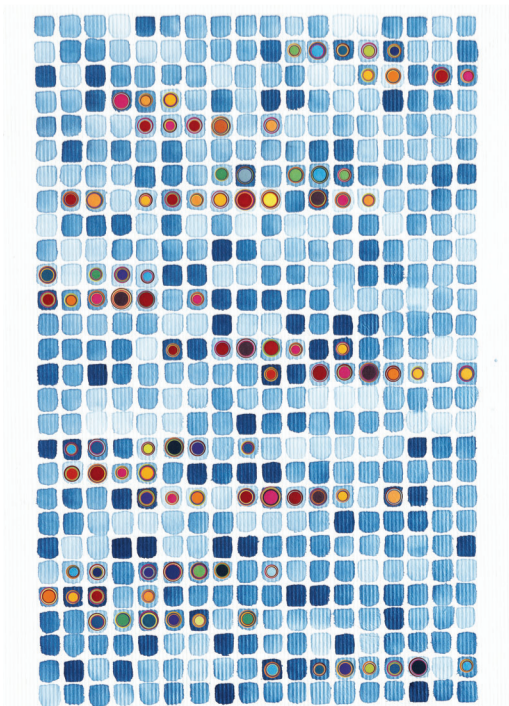
천영록 작가의 '행복한 꿈으로 물들다' 전이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에서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열리고 있다. 작가가 상정하는 '행복한 꿈'은 무엇일까. 작가는 작품으로 자신의 사유와 작품의 의미를 담아내는 존재다. 자연의 섭리를 포착해 자신만의

의 화법과 관념으로 구현한 그림들에는 행복한 꿈들이 투영돼 있다. 작가는 겨울에 내린 눈이 빛에 반사돼 형형색색으로 보이는 모습들을 보고 '눈은 색이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한다.

'순환의 리듬'은 그런 작가의 예민하면서도 섬세한 심미안이 투영된 작품이다. 작가에 따르면 각각의 점을 픽셀, 즉 작은 색 조각으로 해체하고 다시 재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색 점 하나하나에 인간과 자연의 유대감을 표현했다.

전 작가는 “이번 전시는 자연의 미를 모티브로 자연과 인간의 연결지점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수제 한지가 주는 독특한 질감, 색감과 아울러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천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0회 개인전과 다수의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순환의 리듬'

# 바다환경 보전 국악뮤지컬 '토끼가 어떻게 생겼소?'

### 국립남도국악원 25일 무료 공연

“친구들아, 제발 나를 도와줘!” 국립남도국악원(이하 국악원)은 바다환경보전 국악뮤지컬 '토끼가 어떻게 생겼소?'를 오는 25일 오후 3시 국악원 대극장 전야당에서 펼친다. 이번 공연은 생태문화와 한국 전통예술을 융합한 레퍼토리를 기획·제작해 온 '국악공간 서이'를 초청,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게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평화로운 바닷속, 산해진미를 먹고 나서 탈이 난 용왕을 위해 용궁의 종신 자라는 '토끼 간'을 구하러 육지에 나선다. 정작 지상에 도착하자 자라는 눈앞에 놓인 이상한 물건을 마주하게 된다. 정체불명의 물건은 무엇일까, 자라는 토끼 간을 되찾고 탈이 난 용왕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극은 1부 '여행의 시작', 2부 '바닷속에 담긴 위기!'에 이어 '육지에 간 자라' (3부), '다시 깨끗해진 바다세상!' (4부)으로 구성된다. 환경문

제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판소리를 접목해 온 가족이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가야금, 대금, 소금, 해금, 타악 등 전통악기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국악공간 서이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나는 예술여행' 서울지역 작은도서관 공연(50여 회)을 비롯해 국립민속국악원 이야기보따리, 국립국악원 레퍼토리를 기획·제작해 온 '국악공간 서이'를 초청,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게 환경보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공연 전후 지도읍사무소와 국악원, 오산초등학교(교군면)를 거쳐 회동(신비의 바닷길)과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11월 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관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한다.

국악원 정순영 주무관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은 물론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국악 뮤지컬을 선보인다”며 “우리 전통예술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극에 담긴 메시지까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